

교문맞이

배움의庭園

임효경
완도중 교장

기말고사 두 번째 날 오후 따스한 겨울
별에 해바라기라도 할까 하고 나온 운동
장이 조용하다. 삼삼오오 공을 차거나,
농구대 주변에서 공을 던지거나, 친구들
놀리고 달아나거나 하며 왁자지껄 시끄
러워야 할 운동장이 썰렁하다. 역시, 학
교는 아이들이 있어야 한다. 고객들이
없는 학교는 윤택하지 않다. 그들은 물
론 불평도 많고, 요구사항도 많고, 골치
아플 때도 많지만, 그들이 없으면 우리
학교도 존재하지 않는다.

매일 아침 8시, 별일이 없는 한 난 교
감선생님, 그리고 그날의 당번 선생님과
함께 교문맞이를 한다. 여름이라 뜨겁다
고, 더워서 아침부터 땀으로 범벅된다
고, 햇볕에 얼굴 그을린다고 해서 포기
하지 않는다. 겨울이라 찬 바람이 매섭
다고 해서 난 포기하지 않는다. ‘어서와’
‘화이팅!!’ ‘웃는 얼굴로 학생들 맞이
하는 보람과 기쁨을.’ 이상한 변호사 우
영우 ‘처럼 교문을 쓴살처럼 뛰어 교실로
직진하는 우주랑 하이 파이브를 한 날은
내 얼굴에 웃음이 번진다. 오늘은 무엇
이 바쁘지 그냥 지나갔다. 난 시무룩해
졌다.

나는 교문 앞에서 본다. 한 아이마다
깃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한꺼번에 오
는 것을. 3월에 새싹처럼 귀여운 신입생
들은 단정한 사복 차림과 갓 자른 듯한
머리, 그리고 수줍은 눈빛으로 금방 눈
에 뜨인다. 초등학생의 면모를 미처 벗
지 못한 어린 신입생들은 약간 긴장을 한
듯하다. 교문에 들어서면서 교문맞이를
하는 선생님들을 향해 호기심에 눈을 반

짝였다가, 이내 수줍음을 내비치며 눈빛
을 내린다.

또한 이제 학교에서 큰형이 된 3학년
들이 학생자치회 선도부원으로 교문을
지키며 등교하는 학생들의 복장 단속,
지각 단속을 하는데, 제법 틀이 잡힌 모
습이 든든하다. 어깨에 힘을 주고 짐짓
멋짐을 뽐내려 하는 모습에 웃음이 난
다.

나는 안다. 5월처럼 가정의 달이 되면
더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10월 초 가족과 함께 보낸 긴 휴일 후 어

“내 어린 시절 나에게 꿈과 안
식처가 되어주신 선생님들처
럼 나도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다. 부서지기 쉽고 부서지
기도 했을 그 마음을 읽어주
는 바람같이 우리 아이들 등
꽃길 교문 앞에서부터 환대
를 해 주고 싶은 것이다.”

편 아이들의 어깨가 더 처져있다는 것
을. 어떤 학생들은 차라리 학교에 오는
것이 집에서 홀대받거나, 가정폭력에 시
달리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을. 무슨 일
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가족과 함께 휴
일이 즐겁지 않았고, 오히려 슬퍼서 우
울한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마치 내가
그랬던 것처럼.

나는 기억한다. 내가 13살일 때 5월 5
일, 쓸쓸했던 그날을. 어린이날이라 하
지만 선물 하나 받지 못해 혼자 징징거리
다 단종집 옥상에 올라갔다. 여름날 밤
이면 별을 바라보고 멍때리곤 했던 나만
의 공간이었다. 5월 햇살이 뜨거웠다. 커

다랗고 동그란 흙색 플라스틱 통 속에 들
어가 또 징징거리다 잠이 들었었다. 잠
에서 깨어보니, 천지는 어두운 사위로
둘러져 있었다. 그때까지 나를 아무도
찾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난 철이 들어
버렸다. 아, 삶이란 외로운 것이구나. 우
리 집은 모두 나에겐 관심이 없구나. 슬
펐다.

그런 나에게 학교는 신기하고 다정한
세계였다. 학교는 쓸쓸하지 않았다. 날
마다 새롭게 배우는 것이 있어서 즐거웠
고, 말 잘 듣고, 순종하니 칭찬해 주는 선
생님들이 있었다. 특히 중학생이 되었을
때, 선생님을 사모하며 사춘기를 넘겼
다. 그때는 모두 가난했다. 아주 가난하
거나, 조금 가난했다. 그래도 학교에서
는 표가 나지 않았다. 교복을 입었고, 모
두 단발머리였으니까. 그리고 핸드폰과
인터넷이 없을 때이니 남들의 가정 사정
을 소소히 알 수 없었다. 방학이 되면 모
두 방학 일기를 쓰고, 방학 숙제를 했다.
고전문학이나 세계문학 독서록을 제출
해야 했다. 난 동네 친구 집에 가득한 세
계문학전집이 욕심나서 부지런히 빌려
다 읽었는데, 그것으로 칭찬을 들었다.
네모 반듯한 책상과 질서정연한 공정하고
올바른 세상, 학교는 나의 희망이었다.

이제 세월은 흘러, 내가 선생님이 되
었고, 교장이 되었다. 그때 그 시절 부모
님이 어린 딸 선물 하나 살갑게 챙겨주지
못한 것은 그만큼 바쁘고 신산한 인생을
사셨다는 것을 이제 안다. 하늘나라 가
신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리다. 그분들은
가시고, 내게 학생들이 온 것이다. 내 어
린 시절 나에게 꿈과 안식처가 되어주신
선생님들처럼 나도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다. 부서지기 쉽고 부서지기도 했을
그 마음을 읽어주는 바람같이 우리 아이
들 등꽃길 교문 앞에서부터 환대를 해 주
고 싶은 것이다. 학교는 우리 모두에게
벽한 삶이고 희망이어야 한다.

미국 링컨 대통령의 용서 방법

세상읽기

한정규
자유기고가

국회의원을 비롯한 각급 정치인들은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라며 결핍
하면 당파 간 다룬다. 하지만 그 속내를
드려다 보면 자기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
며 자신이 속한 정치집단을 위해서다.
또한 그들은 때때로 서로가 서로에게 욕
하고 손가락질하고 폭력이라도 행사할
것처럼 행동을 한다. 그리고 돌아서서
등을 다독이며 웃는다. 그 광경은 국민
을 우롱하는, 더 나아가 한국정치문화의
잘못된 행태를 보는 듯 하다.

뿐만 아니라 선거에서 승리해 집권을
하면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 지지
하지 않은 지역출신 또는 정당소속 인
재에 대해서는 관심 밖이다. 국익을 위
해 필요한 정책 또는 사람이라도 자신
을 지지하지 않았음을 빌미로 철저하게

배제시켜버린다. 정치계의 병폐 중 의
병폐다.

미국의 제16대 링컨대통령은 유권자
가 자기에게 악의를 품고 부당한 행동을
했다라도 그 것을 빌미로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 오히려 협조할 일이 있으면 적
극 협조하기도, 협조받기도 했다.

평소 링컨 대통령 자신에게 불이익이
되는 일에 앞장을 서 반대를 했거나, 원
수라도 특정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
고 국가가 필요로 한 인재라고 판단되면
기용했다.

또한 링컨대통령은 이미 해버린 일을
두고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한 일 또는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비난을 해서도 안 된
다. 라고 했다. 링컨은 용서에 대해 남달
랐다.

링컨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대통령이 돼 흑인노예를 해방시켜 인권
대통령으로 평가를 받았으나 또 다른 한
편으로는 불운한 대통령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 번은 링컨이 임명한 고위관료인 맥

클레번, 스탠튼, 체스, 시워드 등으로부
터 탄핵을 받는 등 모욕을 당했다. 그렇
다고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국익을 위해서는 원수 같
은 사람이라도 국가가 필요로 한 인재다
싶으면 망설이지 않고 그를 용서하고 필
요로 한 그 자리에 기용 임명하는 등 용
서에 대한 탁월함을 보였다. 그를 두고
링컨용서방법이라 한다.

한국정치지도자들도 자신과 다른 당
또는 계파 인물이라도 국익에 도움이 될
인재다 판단되면 기용하는 모습을 보였
으면 한다.

또한 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반대를 위
한 반대만을 하지 말고 국익을 위해 협조
가 필요한 일이다 판단 되면 적극 협조
잘되도록 했으면 한다.

다시 말해 이제 한국 정치인도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지 말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에는 링컨처럼 당내 계파 또는 정
당을 초월 적극 돕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그 모습을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
이다.

기고 김수관 상무 수(秀)치과의원 대표원장

나눔 통한 사회적 가치
성과 확산을 기대하며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이 있다. 모범
적인 지역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한 기업과
기관을 발굴 선정하여 격려하고자, 지역
사회공헌 인정 기업의 활동 공로 및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2019년 인정제 시
행일부터 ‘인정의 날’을 지정하여 우수 사
회공헌 프로그램(장관상) 및 유공단체
(표창)에 정부포상 등을 수여한다.

그동안 경과를 살펴보면 2019년 7월
25일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시행 공고가
되어 2019년 12월 3일 지역사회공헌 인
정제 121개소 승인 공고가 되었으며,
2020년 11월 30일에 265개소 승인 공고
가 되었다. 2021년 12월 3일 350개소 승
인 공고가 되었으며, 2022년 12월 14일
404개소 승인 공고가 되었으며, 2023년
12월 8일 상무 수치과의원을 포함하여 지
역사회공헌 인정제 531개소가 승인 공고
되었다.

나눔은 선한 삶을 보는 기쁨과 고마움,
희망이다. 나눔의 가치는 나의 행복이라
고 생각한다. 나눔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이
다. 삶은 끊임없는 봉사의 연속이다. 진정
한 나눔은 누구에게나 통한다. 나는 나눔
의 인생을 실현하고 싶다. 나눔은 나의 행
복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성심으로 최선
을 다하는 것 그 자체가 아름다움이다. 주
변에 기쁨과 유익을 끼치는 일이라고 생
각한다.

나눔을 꺼리는 이유에는 당장 나도 어
려운데, 이 정도로 도움이 될까? 나중에
더 자리가 잡히면 해야지 등이 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든지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다. 시간, 물건, 선물, 음식, 기술,
행사진행, MC, 공연, 아이디어, 루돌프,
산타 등 마음만 있으면 나눌 수 있는 것이
많다. 지식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루어
지는 프로 보노(Pro Bono)로, 변호사들
이 무료 변론을 하거나 치과의사나 의사
가 무료 진료봉사하는 것이 있다.

‘예쁜 모습은 눈에 남고 멋진 말은 귀에
남지만 따뜻한 배품은 가슴에 남는다’라
고 한다.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 따뜻한 마
음을 가지고 나누며 살고 좋은 예술이 영
원히 남듯이 돈을 사용한다면 그 돈의 가
치가 계속 남을 것이다. 나눔이란 나의 행
복이며 같은 마음으로 함께 가고 함께 하
는 것으로, 혼자가 아닌 더불어 사는 세상
이 됐으면 한다.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이 되
는데 좋은 양분이 되기 위해 내가 태어나
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
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이 나의
행복이고 나의 사랑이다. 개인적인 이익

보다는 이웃을 위해 살려고 노력하고 있
다. 평생 의료봉사와 기부하는 나눔의 삶
을 실천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매일을
사는 우리의 일상 생활도 이웃들에게 기
쁨과 행복이 되었으면 하고 소원해 본다.
그렇게 함으로써 선한 영향력이 널리 퍼
질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자발적인 기부는 사회의 힘이 된다. 그
러나 일부 재벌과 대기업주들의 경우 사
회적 물의를 일으켜놓고 빠져나가기 위한
방편으로 재산을 헌납하는 기부와 절세를
겨냥한 눈가림식 기부 관행은 없어야 한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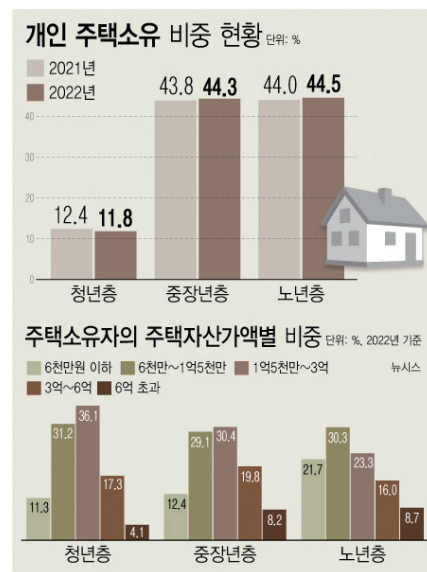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몇몇 기업인
이 사회에서 번 돈은 사회에 환원해야 한
다며 ‘유산 안 물려주기 운동’을 시작했
다. 특히 죽어서도 나누는 유산기부, 사회
에 상속함으로써 나눔의 보람이 더욱더
클 것이다.

기부보험은 기부자가 자신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고 사회공헌단체를 수익자
로 지정해 기부자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
을 지정한 단체에 지급함으로써 사랑나눔
을 실천할 수 있는 아름다운 보험이다. 적
은 금액을 모아 향후 큰 금액을 기부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기부금 마련방법으로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이웃사랑 실천이 가
능하다. 특히 1회성 기부가 아닌 오랜기
간 동안 실천할 수 있는 지속적인 기부방
법이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내가 여유가
있다면, 이 여유를 함께 나누다면 이 사회
를 더욱더 밝게 하도록 사회에 확산이 되
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많은 기업들에서는 ESG 경영을 바탕
으로 지역사회에 더 많이 기부하는 나눔
문화 발전에 앞장서고 성숙한 나눔과 봉
사를 실천하며 다양한 지역사회공헌활동
을 통해 사회적 가치 성과를 확산하며 긍
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으로 따뜻한 나눔
실천을 통해 사회와 공생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선한 영향력으로 착한 기
업으로의 행보를 이어가 지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는 인증
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야할 것이다. 또한 나와 우리, 그리고 지
역사회가 함께 힘을 합쳐 사회문제 해결
에 앞장섬으로써 다음 세대가 행복한 사
회를 꿈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할 것
이다.

행복해지는 것은 언제라도 늦지 않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당신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이다. 세상을 위해 나를 기부
하라!

그래픽으로 보는 세상



특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전남일보 e-mail
webmaster@jnilbo.com전화
(062)510-0321